





2023 더 자스민 일보(一步)

*일보(一步) : 한 걸음 나아감

- “[밑줄 클릭](#)”만으로 본문 열람 가능합니다 -

 @writist_son
 @anywriting
 @bestjasmineever
 @super_eunkyung

Since 2020

여전히 어설피지만 그래도 지속할 수 있는 힘. 그래서 지난 1월 ‘더자스민일보(一步)’ 발간 후 무얼 했냐 하면 지속했다고 밖에 할 수는 없다. 특별히 새로워 보이는, 전에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건드려야 했지만 그렇다고 아주 색다른 일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니었으며 또 그렇다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던 것은 아니었다. 고로 지속했다고 밖에는. 그럼에도 작은 시도, 작은 행동을 통해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싶었던 것만은 확실하다. 내 어미에게 약속했던 ‘올 해 이수경 여사 은퇴 추진’을 지켜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무어라도 작게 작게 하려고 했다고는 반듯하게 말할 수 있다. 그리고 지속해 글을 썼고 단 하나를 위한 글방을 열었으며 새로운 인물들과 만나 내게 없는 무어라도 배우려고 했다. 그래서 약 2달 만에 하는 이 발간이 지난 제15호와 아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지속할 수 있는 건 애초 이 월간지를 만들 적에 일보(一步), 즉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었으므로 할 수 있었다고 밖에는.

하지만 두 달 사이 아주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 삶의 터를 바꾸었다는 것. 우리는 이제 서울에 없고 서울 시민세를 내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서울에서 이용 가능하던 복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, 그렇다고 아쉽지만도 않은 건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기대가 따라서 일 것이다. 그래서 말인데 24는 8이라더니, 올해 이사로 작년보다 8배는 더 벌려나.



“[발아 글방](#)”, 싹을 틔워 꽃 피우다

- 글쓰기 초보를 위한 글방을 만들었습니다. 올해는 쓰시기를!
 - 시작 : 2023.4.4(화) 밤 9시 ~ ([자세한 사항은 여기로](#))



※[자매품](#) : “[손은경 글방](#)”

칼럼



“글 속의 글”

1. [쓰기 | 잘 쓴 글이란, 대체 어떤 글을 말하는 걸까?\(이론편\)](#)
2. [쓰기 | 잘 쓴 글이란, 대체 어떤 글을 말하는 걸까?\(실천편1\)](#)
3. [쓰기 | 잘 쓴 글이란, 대체 어떤 글을 말하는 걸까?\(실천편3\)](#)
4. [출간 | 이것만 포함해도 책 퀄리티가 달라진다!\(본문에 포함하면 좋을 3가지\)](#)
5. [출간 | 스무스하게 계약한 초고는 000가 있을 확률이 높다](#)

<나의 비건 분투기> 포함, 5권 지

손은경 작가의
‘튀르키예 국제부부’ 리얼스토리

글을 매개로 창작을 합니다.
#국제부부 #혼의아내 #창작자

조회수 30만 돌파!

네이버에서 ‘국제부부’를 주제로 연재 시작했습니다. 튀르키예인 남편 혼과 한국인 아내 은경만 할 수 있는 인터넷서널 커플 이야기입니다. 이것까지 말해도 괜찮을까, 싶을 정도로 뒤집어 까 탈탈 털어 쓰고 있습니다. 이런 사랑도 있고 저런 사랑도 있음을 간접 알리기 위해 말이지요.

매주 목요일 절찬 연재 中

[▶ 보러가기](#)

